

光州日釈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1267호 1판 (음력 4월 6일)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광주·전남 핵심전략산업 '탄력'

광주'자율주행차'·전남 'E모빌리티' 등에 1447억여원 지원 정부, 전국 총 9100억 투입 … 균형발전보다 균등배분 초점

광주의 '자율주행차 편의전장' 전남의 'E모빌리티'등 이 지역의 혁신전략산업 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2021년도 지 역혁신전략산업을 위해 광주·전남에 1447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전국 14개 시 도별 혁신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내년에 총 9100억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이 기존 109개에서 130개로 늘었음에도 광 주·전남에는 단 1곳도 지정되지 않은데 다, 내년 예산 배정액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균형발전보다는 균등 배분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도 나오고 〈관련기사 3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3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 등 4개 안 건을 의결하고 '지역협력 혁신성장사업 추진동향 및 향후 계획'등 2개 안건을 논

이날 의결된 '2021년도 지역혁신성장 계획안'은 지난해 8월 균형위에서 의결된 지역혁신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4개 부처 별로 추진해온 11개 지역혁신지원 사업과 90여개의 시도 자체사업을 지역혁신 성장 방향에 맞게 각 시도가 주도한다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시·도별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수도권 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국비 약 4321억 원, 지방비 4791억원 등 약 9100억원을 지역별 특성에 맞춘 지역혁신전략산업 육 성에 투입해 지역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 게 지원하게 된다.

광주의 혁신사업은 자율주행차 편의전 장, 스마트가전, 광융합, 스마트금형, 에

▶2면 이홍재의 세상만사

▶7면 등교개학 … 학교는 방역전쟁



KKK… 'K 마운드' KIA

너지산업, 디지털생체의료 등이며 2021 년 477억원(국비 284억원·시비 193억

전남의 혁신사업은 E모빌리티, 종소형 선박 및 기자재, 드론,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 부품, 스마트 농생명, 정보통신 융합 등이며 내년에 970억원(국비 453억원·도 비 517억원)이 투자된다.

전국적으로는 경북(973억원), 전남, 경 남(876억원) 순으로 예산 배정이 많고, 광주의 지원액은 세종(256억원)을 제외 하고 최하위 수준이다.

이날 회의에선 또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이 의결됨에 따라 '혁신 도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이 기존 109개에서 130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 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 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 단 등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 기관(15개), 수도권 소재 기관 또는 수도 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은 지방 소재 기관 (6개) 등 21곳이 새롭게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 들 대부분 기관은 대전과 충청도에 위치 해 있고,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새롭게 지 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이 된 곳은 1

이와 관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 관계 자는 "신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 은 지난 1970~1990년대 해당 지역으로 옮긴 경우가 많고, 광주·전남의 경우 대상 기관이 없어 이번에 추가 선정되지 못했 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2 차 지방 이전 과정에 이 같은 불균형이 충 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





긴급재난지원금에 되살아난 소비심리

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돼 있던 소비심리가 긴급재난지원금 등 경기부양 정책 효과로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5월중 소비자심 리지수는 전월보다 5.6포인트 오른 80.1을 기록하면서 넉 달만에 상승했다. 이날 오전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이 물건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낙연, 민주 당권 도전한다

다음주 대표 출마선언 … 대권 행보에 속도낼 듯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사진〉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당 대표에 도전한다. 유 력 대선주자이기도 한 이 위원장이 당권을 거쳐 대권 행보에도 속도를 낼 것이란 관 측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 위원장 측은 27일 광주일보와 통화 에서 "이 위원장은 8월 전당대회 출마 결 심을 굳히고, 현재는 출마 선언 시기를 조 율 중이며 이르면 6월 첫주에 출마를 공식 화 할 것 같다"면서 "현재 이 위원장은 몇 몇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조율을 마치는대로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 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 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거대 여당의 안 정적인 운영을 위해 책임감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출마를 결심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광주를 방 문한 자리에서 당권 도전 여부와 관련, "너무오래끄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전대 출 마 여부를 조만간 결

정하겠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 당 내 당권 주자들의 교통정리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현재 당권 후보로는 이낙연 위 원장과 송영길・우원식・홍영표・김두관 의 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초선 의원들 1호 법안은?

5·18관련법·여순사건 등 지역 현안 담은 법안 준비

호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 18명 중 초선인 13명은 5·18관련법,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 등 지 역 현안을 담은 법안을 자신의 첫 '작품'으 로 준비하고 있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광주지역 당선인 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왜곡 처벌법) 개 정안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 으로 정해 올해 내에 입법을 마 무리 지을 방침이다.

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당선인은 '역사왜곡처벌법'을 준비 중이다. 양 당선 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 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과 존엄을 침 해할 경우 이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이 라고 설명했다.

이형석(북구을) 당선인도 1호 법안으 로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의 제정을 꼽았다. 이 당선인은 "이미 국회가 제정한 법률적,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5·18 민주 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대한민 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영덕(동남갑) 당선인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을 첫 법안으로 내세웠다. 윤당 선인은 "상생과 나눔, 그리고 연대의 정신 확산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사 21대 국회 광주·전남 초선 의원들의 1 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아보고싶 다"고 설명했다.

> 또 이용빈(광산갑) 당선인은 광산지역 최대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준 비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도시 중심에 자 리잡고 있는 군용항공기지의 소음으로 인 해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소음피해 배 상액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민형배(광산을) 당선인도지역취약계층 을 돕기 위한 '재난 대응 사회 취약계층 지 원 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회적 재 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법안이다.

> 광주출신 정의당 강은미 비례대표 당선 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준비하고 있다.

> 이 밖에 초선 의원들로 구성된 여수 순 천지역 당선인들은 여순사건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마련하기 위한 준비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소병철(순천광양곡성 구례갑), 주철현(여수갑), 김회재(여수 을),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당선인 은 최근 '여수·순천10·19사건특별법제정 공동추진위원회 결성식'을 갖기도 했다.

> >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